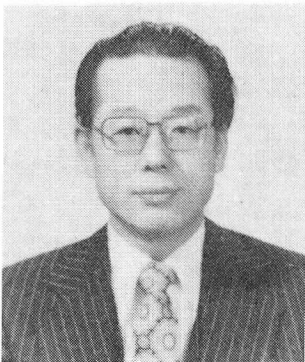


「풀」을 존속시키되 배분참여도 한 방법



朴 恩 會
(성균관대 교수)

요즘 담배·컴퓨터·지적소유권 등과 함께 보험의 개방문제가 한미간의 정치회의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개방이란 수입규제를 풀어 자유화 또는 완화하라는 뜻일 것이다.

보험의 경우 개방에는 세가지 측면이 있을 것인데 대개는 이를 혼용하여 초점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첫째로 무역자유화에 해당하는 국가간의 보험수출입을 개방하라면 재보험의 자유화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78년3월 재보험공사 민영화로 계기로 해외재보험의 자율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84년도에는 受再 5천8백4만달러에 비하여 出再는 1억6천5백75만 달러를 나타내 격심한 수입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순수지에 있어서는 8천3백36만달러라는 막대한 적자를 나타냈다. 상품무역으로

말하면 수출은 제값을 받지못해 손해를 보고, 수입은 싼 물건을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본셈이다.

앞으로의 대응책에는 국내보유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비롯하여 해외정보와 재보험기법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로 이미 한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 영업영역을 개방하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는 AHA·CIGNA양사는 81년의 해상보험면허와 83년의 자동차보험면허로 외형상 전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84년도에는 98억원의 보험료수입을 올려 손보시장의 1.12%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 손보시장에서 경쟁 제한종목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증보험을 비롯하여 화재보험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특수건물 및

공장에 대한 법정보험, 방산업체 및 개스업체 등의 풀, 그리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원자력 및 보세 화물 풀 등인데 보험료로 따져 10% 내외이므로 90%는 이미 개방이 끝난 셈이다.

앞으로 나머지 10%를 개방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풀을 존속하되 외국회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풀을 해체하여 자유경쟁에 맡기는 방법이다.

먼저 보험풀을 검토해보자. 풀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국에도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업계가 자생적으로 형성한 원자력, 인공위성, 해저자원개발 풀 등도 있지만, 법정풀로 풍수해보험풀, 폭력등 기피상품의 풀(FAIR, Fair Access to Insurance Requirement), 인수거부된 자동차보험풀(Shared Market라고 한다) 등이 있다.

풀의 형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술적 이유인데 원자력이나 인공위성은 위험측정도 어렵지만 예상손해의 강도(Severity)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별회사가 인수할 능력이 없어 위험을 처음부터 분할(Sharing)하기 위해서 공동인수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적 이유이다. 미국의 풍수해·폭력·자동차보험의 Shared Market은 모두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성립시킨 풀들이다. 보험회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풀인 셈이다.

세번째는 경영적인 이유에서 성립된 풀이다. 공동인수를 하게되면 집중적인 연구개발도 가능하고 유통경로가 단순하여 판매코스트가 저렴하며, 사고시의 보상도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64년에 성립된 금융풀은 보험코스트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73년에 성립된 특수물건풀은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이유에서 시작되었지만 방재기술의 향상과 보험회사의 수지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기술적으로 개별인수가 어려운 원자력·방산 등과 사회적으로 공동개발 또는 인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종목은 풀로 존속하되 외국회사도 이에 참여시켜 담보력의 증강과 국내보유의 증대를 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나머지 종목은 단계적으로 해체하여 개방사회의 체모를 갖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끝으로 외국보험회사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할 경우 개방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Sigma誌에 의하면 82년 현재 세계보험회사의 수는 1만2천7백26개사인데 내국사 대 외국사의 비율은 81:19라고 했다. 지역별로 외국회사의 비율을 보면 미국이 5%이만(4.6%)으로 가장 낮고, 아시아가 44%로 가장 높으며, 유럽 26%, 중남미 12%, 아프리카 27%, 대양주 34% 등으로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 손보사와 2개 외국사가 있으므로 87:13인 셈이다. 미국의 5%보다는 높지만 세계평균인 19%보다는 낮다. 그러나 회사수 보다는 시장점유율이 문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손보사의 수는 38개사로 내국 원보사(20개사)의 2배나 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2% 미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의 신규회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고 담보력이 증강되며 시장의 저변확대가 촉진된다는 여러가지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었다는 명분 이외에는 별로 얻은 실리가 없었다.

앞으로 미국이나 그밖의 다른 나라가 신규로 국내진출을 희망할 경우 지난 20년동안 내국인에게도 신규 면허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점이나 주식참여 방식이외에도 합작법인의 설립이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우리의 경제가 선진대열에 접근함에 따라 개방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리라고 보여진다. 막을 수 없는 물결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다.

적자생존의 냉혹한 현실이 닥쳐올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질을 국제전에 알맞도록 강화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전에서 이기는 길은 상품·가격·유통에서의 경쟁력 이외에도 위험관리기법과 사부기계화가 기본요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의 해외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회복을 위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